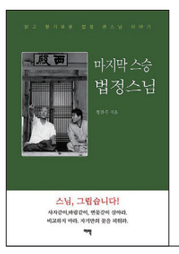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21~2/2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너는이미기적이다:틱낫한스님의365일잠언모음집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6	미얀마아라한의수행:9위빠사나선사들의법문모음	강종미 편역	해장각
2	성철스님의짧지만큰가르침	원택	장경각	7	비움과금강경:근본불교와대승에서의공	시현 번역과 해설	사유수
3	어싱:땅과의접촉이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8	꾼달리니딴뜨라	스와미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4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9	불교입문(조계종신도교재1/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5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10	언어진실을전달하는가왜곡하는가(밝은사람들총서18)	박찬욱 기획/한자경 편집	운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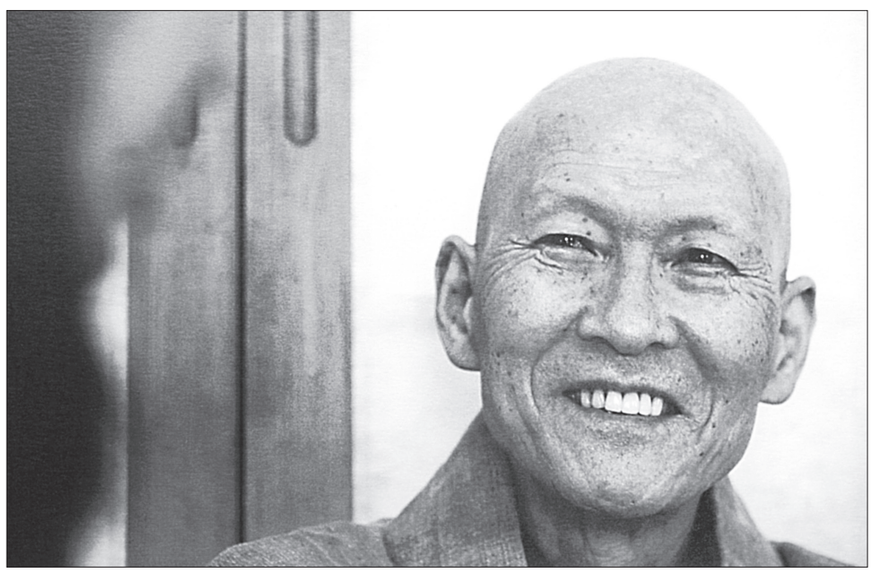
책세상

법정 스님의 아난, 정찬주의 '여시아문'



마지막 스승 법정스님
정찬주 지음
여백출판사
1만8000원

법정 스님 입적 14주기 맞아
직접 경험한 스님 일화 정리
스님의 품격 · 사상 잘 담아내
법정 스님 엽서 · 편지 · 유묵도



법정 스님이 〈현대불교〉와 인터뷰하던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991년 6월 16일 단옷날, 마흔의 정찬주가 무염(無染)이라는 법명을 받고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난 날. 샘터사 편집자로서 법정 스님과 앞서 6년간 교류해온 정찬주는 스님의 제자가 되고자 찾아가 당돌하게 말했다.

"스님, 법명을 주시되 인생의 좌우명 같은 법명이라면 더 좋겠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정찬주의 태도에도 전혀 불쾌해하지 않고 나이를 묻더니 하룻밤이 지나 계첩을 수여했다.

"저잣거리에 살면서도 물들지 말라는 뜻에서 무염이란 법명을 지어보았소."

욕심 때문에 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샛길로 빠지거나 허물을 지을 때, 신호등 같은 계를 생각해 발걸음을 멈추라는 법문까지. 법정 스님과 불일암 계단을 내려오던 정찬주는 이날을 '불자로서 B.C시대에서 A.D시대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선 느낌'이라고 술회한다.

지금은 원로소설가인 정찬주는 법정 스님의 '아난'이다. 붓다가 입멸할 때까지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가장 많은 설법을 들은 다문제일(多聞第一) 같은 존재. 붓다의 나이 50세쯤 시자로 추천돼 30년간 붓다를 모신 아난처럼, 정찬주 역시 1980년대 법정 스님을 만나 2010년 3월 스님의 입적까지 곁을 지켰다.

이처럼 〈마지막 스승 법정스님〉은 재가 제자인 정찬주 소설가가 법정 스님의 14주기를 맞아 펴내는 산문집이다. 지난 2020년 스님의 10주기에 〈법정스님 인생응원가〉를 펴낸 그가 올해 다시 법정 스님 그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누군가 지친 영혼에게 다가가 문을 두드리듯 노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저자는 "종교계마저도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오늘, 법정 스님의 가르침 한 줄이 신산한 삶으로 힘겨운 독자들에게 위로와 응원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한다.

〈마지막 스승 법정스님〉의 1부는 저자가 소장하고 있는 스님의 엽서와 편지, 유묵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유묵들이 갖는 사연을 사실대로 서술하면서 법정 스님의 정신과 품격, 사상을 진솔하게 엿볼 수 있다. 법정 스님과의 첫 만남, 법명을 받던 날의 기억, 저자의 산방인 이불재로 '가정방문'까지 왔던 스님의 애틋함이 여운을 남긴다.

2부 1장 '불일암은 법정스님이다'는 불일암 공간에 저장된 저자의 추억과 사연들이다. 불일암이야말로 법정 스님이 가장 치열하게 정진한 곳이고, 물소리와 바람소리 같은 자연주의적 칼럼을 활발하게 발표해 어둔 세상을 밝힌 곳이기도 하다. 2부 2장 '스님의 가정방문'은 저자가 듣고 본 법정 스님의 말씀과 당시 상황을 복기한 글로 채웠다. 법정의 아난 정찬주의 여시아문은 여기서 빛을 발한다.

법정 스님이 학생들 자존심을 세워주려 학비를 클래식음악카페에 맡겨 찾아가도록 한 일, '베푼다'는 말보다 '나눈다'는 말을 즐겨 쓰던 스님, 스님이 권한 세 권의 책 등 소소하고도 교훈이 되는 이야기가 향훈으로 다가온다.

책에 담긴 내용 중 일부는 앞서 여러 지면을 통해 알려진 것도 있다. 저자는 이를 빼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두세 번 반복된 사연이라 하더라도 읽을 때마다 지친 영혼을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저자 **정찬주**는?

1953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국어교사로 잠시 교단에 섰다. 월간 〈불교사상〉에서 편집자의 삶을 시작해 십수 년간 샘터사 편집자로 법정 스님 책을 만들면서 스님의 각별한 재가제자가 됐다. 1983년 〈한국문학〉 신인상으로 작가가 됐다. 법정 스님에게서 받은 무염(無染)이란 법명을 마음에 품고, 전남 화순 계당산 산자락에 산방 이불재(耳佛齋)를 지어 2002년부터 그곳에서 텃밭을 일구며 자연에 둘러싸여 집필에만 전념 중이다.

스님이 그려낸 천진불 동심



어린왕자의 꿈
묵암 지선 지음
기획출판 반딧불
1만5000원

'손 끝에 닿진 않지만/ 해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우주의 신기한 섭리// 그중에 생명이 살아 숨쉬는/ 푸른 별 지구별/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시사철 태양의 주변을/ 돌고 도는 고마운 별// 우리의 생명 별 지구가/ 영원히 평화롭고 행복하길 기도합니다.// 찌르륵! 찌르륵!/ 풀벌레 소리 들으며/ 나는 소중한 지구별을 지키는/ 어린왕자가 됩니다.' —동시 '어린왕자의 꿈' 중

달을 머금은 산이라는 뜻의 함월산(含月山)의 명찰 백양사에서 수행정진하고 있는 묵암 지선 스님〈사진〉이 지구별을 바라보는 시선이 애틋하다. 천문(天文)을 보며 연기로 이뤄진 자연의 섭리를 알며, 그렇기에 뭇 생명들이 행복하길 기도한다. 스님은 이내 지구별을 지키는 수행자인 어린왕자가 된다.

울산 백양사 주지 지선 스님이 첫 동시집 〈어린왕자의 꿈〉을 선보였다. 총 54편의 동시가 담긴 시집은 스님이 백양사로 오기 전 30여 년을 주석한 충북 괴산 금봉산 자락에 작은 절(마하금강사)에서 수행한 시간과 산사를 오가며 보고 느낀 대로 쓴 동시들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동자승'과 '어린왕자'는 시인의 어릴 적 로망이다. 시인의 로망은 동시 '연꽃'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어둡고 탁한 뻘 속에서 피어나 하양, 분홍의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연꽃을 그윽이 바라보며 시인은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연꽃에게서 인내와 소생(蘇生)의 힘을 얻고 정화(淨化)의 기운도 얻는다.

초평 김용섭 한국아동문학회 명예회장은 "지선 스님의 동시에 나타나는 동자승과 어린왕자는 시인의 어릴 적 모습으로, 스님의 로망은 동자승과 어린왕자를 통해 투영된다"면서 "동심은 천심(天心)이요 인간의 근원지심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동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평했다.

이 같은 문학적 성취로 지선 스님은 한국아동문학회가 시상하는 '제11회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중일 기자

운암 김성숙 불교 행적, 만화로 만나다



독립운동의 횃불 봉선사와 태허 스님
원작 유응오/ 정수일 글 · 그림
시간여행/ 1만5000원

독립운동가 운암 김성숙 선생의 불교 행적을 만화로 만날 수 있게 됐다.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민성진)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불교유일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운암 김성숙 선생의 사상적 기초가 된 불교입문과 불교행적을 정리한 웹툰 '독립운동의 횃불 봉선사와 태허 스님'이 만화책으로 발간됐다"고 2월 22일 밝혔다.

이번 만화책은 〈우단사련〉에 이은 두 번째 만화책으로 운암 김성숙 선생이 풍곡 신원 선사를 은사로 모시고 출가한 뒤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과정까지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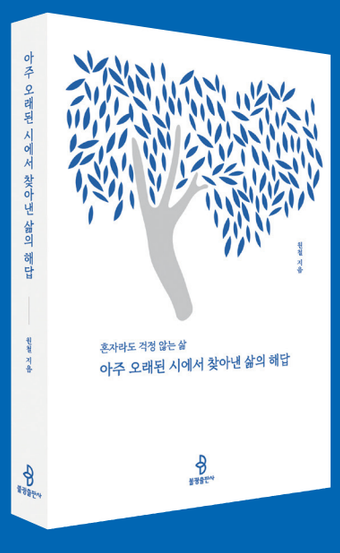
〈독립운동의 횃불 봉선사와 태허 스님〉은 본지 필진인 유응오 소설가의 원작을 기반으로 정수일 만화가가 글·그림을, 정태영 작가가 컬러를 맡아 제작했다. 박제된 독립운동가 이야기보다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대중에 친숙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작가의 창작을 가미한 스토리텔링이 눈길을 끈다. 독립운동의 산실 봉선사의 대중스님들과 운암 김성숙(태허 스님)과의 관계를 조명해 불교의 사상이 독립운동에 끼친 영향도 흥미롭게 접근하고 있다.

운암 김성숙 선생은 용문사에서 출가하고 봉선사에서 수행했으며, 법명은 '태허'였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 옥고를 치른 후 월초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1923년 북경으로 건너가 중국 내 한국 학생들의 정치적 사상적 지도자 역할을 했다. 신중일 기자

흔들림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
나보다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남긴 글, 한시(漢詩)에서 발견하다
불교계 대표 문장가이자 한문학에 정통한 원철 스님이
한시에서 길어올린 '언제든 나의 중심을 잡아줄 삶의 지혜'



아주 오래된 시에서 찾아낸 삶의 해답
혼자라도 걱정 않는 삶
원철 지음
264쪽
18,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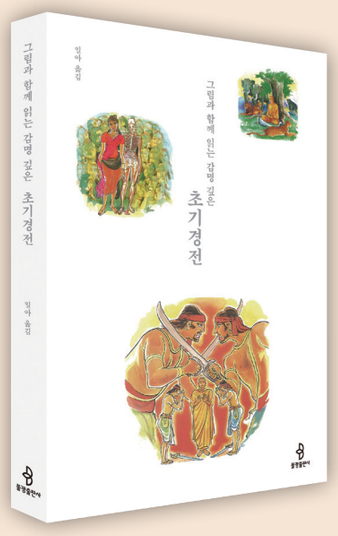
초기경전 분야의 권위자 일아 스님이 가려뽑은
삶의 모든 순간을 평안과 행복으로 만들어주는
붓다의 말씀





그림과 함께 읽는 인류의 고전,
『담마빠다』, 『숫따니빠따』, 니까야의 핵심 구절

그림과 함께 읽는 감명 깊은 초기경전
일아 지음
320쪽
22,000원



『담마빠다』, 『숫따니빠따』, 니까야의
주요 구절을 가려뽑았다. 이와 함께,
더 많은 대중이 더 편안한 마음으로
경전 구절을 접할 수 있도록 누구든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함께 수록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접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